

① 개요

고도채비본은 날래기가 도깨비와 같은 고씨 성을 가진 사람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성산읍 시흥리 고도채비는 매우 날랜 사람으로 신축년 난리 때 총알을 피하며 동문을 열어젖혔으나 곧 붙잡혀 국문을 받는 처지가 되었음에도 임금에게 뛰어난 활쏘기 실력을 보여 처벌을 피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상을 받았다.

② 내용

옛날 심풀(시흥리)에 고도채비라는 사람이 살았다. 고도채비는 매우 재빠르고 손으로 노루나 사슴을 잡을 정도로 사냥에도 뛰어났다. 신축년 난리 때 고도채비가 크게 활약하였다. 제주성 동문 위에서 서양신부가 양총으로 쏘는 것을 피하고 서양 신부를 죽이고는 천주교도들이 놀라 달아나는 틈을 타서 입성하였다. 그러나 나라가 약한 탓에 오히려 성교파를 옹호하면서 난리의 원인을 백성의 탓으로 돌리고, 3의사(오대현, 강우백, 이재수)와 삼읍의 선봉을 모두 잡아 국문을 하였다.

고도채비도 국문을 받게 되었다. 임금이 고도채비를 국문하는 자리에서 얼마나 활을 잘 쏘는지를 물었다. 고도채비는 물에 비친 새 정도는 그림자만 보고도 쓸 수 있다고 하였다. 임금이 고도채비에게 활을 내주고 큰 옹기대야에 물을 담아, 그 위에 새가 날아오거든 쏘아보라고 하였다. 얼마 후 물동이 위에 밥주리(잠자리) 한 마리가 날아오자, 고도채비가 그림자만 보고 쏘아 맞혔다. 이를 본 임금이 크게 감탄하면서 양총 한 자루를 하사하였다. 고도채비는 총을 하사받고 제주도로 돌아왔다. 마을에서 총을 빌리고 싶어도 어사품이라서 함부로 하지 못하였다.

③ 특징

특정한 집안에서 수호신으로 모시는 조상신의 내력을 담은 조상신본풀이 가운데 하나이다. 도채비는 도깨비다. 사람이 도깨비처럼 날랬기에 이와 같은 별명이 붙었다. 그리 오래

전의 이야기가 아니다. 개항기의 사정을 담았다. 임금에게 국문을 받을 정도이니 죽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나, 활쏘기 능력을 보여 무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을 받고 돌아왔다고 하였다.

조상신본풀이가 늦은 시기까지 생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여서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④ 핵심어

심뜰, 시흥리, 사냥, 신축년 난리, 제주성, 동문, 서양신부, 양총, 천주교도, 성교파, 3의사, 오대현, 강우백, 이재수, 삼읍, 국문, 활, 물동이, 밥주리, 잠자리, 어사풀, 고도채비

⑤ 원전 서지사항

고도채비본(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⑥ 관련 자료